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정국 흔들 대형이슈 확대

야, 폭로 수위 높이며 사퇴 총공세...정국 주도권 노려
여 "정치 공세에 불과...검찰 수사 기다려 봐야" 신중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연일 새로운 폭로로 추 장관을 몰아붙이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 방어에 나서는 국면이다. 하지만 민심의 폭발성이 큰 병역 문제인 데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정국을 뒤흔들 대형 이슈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7일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병역과 관련한 불공정은 입사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문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지난해 조국 사태를 소환했다. 이른바 '제2의 조국 사태'를 점화함으로써 정국교체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일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뷰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 검사로 맡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이미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임검사 임명 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 배제도 추진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전현직 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

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 공세에 불

과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방송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는 그렇다"라며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애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좌는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논란이 계속 확산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지 않느냐는 곤혹스러운 기류도 일몰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서 2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대의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7.1% 포인트가 떨어진 39.0%, 민주당 지지율은 6.9%포인트가 하락한 26.9%로 각각 집계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차분·담담 '이낙연 스타일'...감성적 언어로 호소력 높였다

이낙연 대표 국회연설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7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꼼꼼한 문장으로 알려진 '이낙연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대표는 이날 30분간 연설하며 시종 차분하고 담담한 톤을 유지했다. 특히 단문 위주 구성과 다양한 글귀 인

용,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국민 호소력이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연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해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당장 달려가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국

난을 극복하고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과제를 설명하는 동시에 한발 나아가 국가 비전 청사진까지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며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리는 행복국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포용국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 비전을 제시한 부분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또 동시에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소화하려 보니 확실한 한방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대표 연설 여야반응

야권 "‘협치 민주당’ 기대" 이례적 호평

야권은 7일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이 대표의 '협치 민주당'을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호평을 내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여당의 실패, 독선과 과감하게 단절하는 게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기 극복은 전례 없는 협치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는 여당 대표 말씀에 뜻을 같이한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긴요한 곳에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 대표가 연설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평가하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집권 여당이 현 정권 보좌에 급급하고 익숙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오만함에서 비롯된 폭주 기관차의 모습을 하루속히 탈피하게 될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당 "‘우분투’ 정신으로 협치" 화답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호평을 내놓자, 화답 논평을 내고 협치 정신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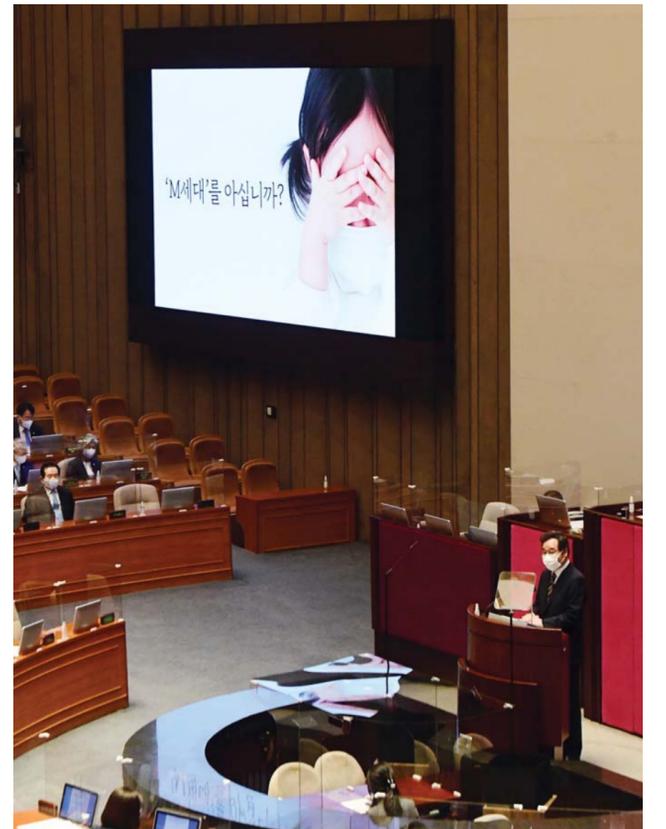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오늘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중후하고 울림 있는 연설이고, 리더의 모습을 봤다며 호평했다"며 "감사드린다. 국민의힘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위해 오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며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 초당적인 협력이 바탕이 된다면 국회는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이며,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연설에서 사용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하며, "국회가 코로나 극복, 민생 우선선을 실천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분투의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 협치를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M세대를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판에 'M세대를 아십니까?'라는 글귀가 떠있다.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